

# 조계사 성역화 사업 2단계 '시동'

## 70억원 투입 시민선원 건립·극락전 해체 보수 등 예정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 시민선원 기공식을 시작으로 성역화 사업 2 단계에 돌입한다.

조계사는 5월 18일 오후 2시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시민선원 기공식을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혜총, 중앙종회의장 지승 스님 등과 국회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공식은 2002년부터 시작한 조계사 대웅전 해체 보수, 일주문 건립, 삼존불 봉안 등 1단계 성역화 사업 마무리 후 2차 성역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조계사는 2차에서 시민선원 건립을 비롯해 극락전 해체 보수, 조각 절거와 신축, 문화사업관 건립, 영산전 건립을 할 계획이다.

총 70억원이 투입될 시민선원은 수송빌딩과 인심당을 해체한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지면적은 241평이며, 건축면적은 603평.

시민선원에는 선방과 기초선원실 등 수련 시설과 발우공양 등을



조계사 시민선원 조감도

제할 수 있는 공간, 다도 등을 제할 수 있는 제형시설이 들어서며, 교육생 숙소와 교수실, 사무실도 마련된다.

인사동-조계사-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립되는 문화사업관은 대지면적 175평, 건축면적 800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영산전은 대웅전 삼존불 조성으

로 기존 목조 석가모니 부처님 및 후불탱화를 모실 전각 및 신행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된다. 대지면적 263평, 건축면적 20평에 맞배 지붕 정면3칸 측면2칸으로 조성된다.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내 준공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시민선원은 올 9월 완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1배에 사랑 담고, 1배에 아픔 나누고...'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 행사

5월 4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앞마당에 6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돕자는 마음으로 모인 불자들은 1배, 1배에 정성을 담아 3000배를 채워 나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실시한 '제7회 난치병어린이돕기 3000배 정진기도'에 참여한 이들은 1배마다 100원을 모금해 백혈병이나 심장병 등의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이날 법회에 참석해 지원금과 "바쁜 시간을 쪼개 참여한 불자들에게

감사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법문을 내렸다. 정진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은 1배당 100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보내 마음을 보냈다.

이번 정진기도를 통해 현장모금 2000여 만원과 불교방송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 수익금, 온라인 후원금 등을 합친 총 3000여 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복지재단은 5월 중순 경 선정위원회를 열고 6월 초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인천불교 범종단 화합을"

## 5월 19일 봉축대법회 봉행

인천불교 범종단 공동 봉축위원회(위원장 지명)는 5월 19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인천불교 범종단 화합과 불교의 대중화, 남북 평화통일 및 2014년 아시안 게임 성공을 기원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다.

식전행사로 컵등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풍선 나눠주기, 사물놀이 공연, 법고 연주 등이 열리며 본행사도 축하공연과 불교법요식이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 내에 비닐하우스용 자재 지원

진각종(총무원장 지명)은 5월 10일 인천항을 통해 북쪽 남포항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용 자재인 골조용 철근과 비닐 등 40피트 컨테이너 2대 분량을 지원했다.

이번에 보낸 자재는 4월 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합의한 데 따른 것.

조선불교도연맹은 평양시에 위치한 두루섬에 폭 6m, 길이 50m의 비닐하우스 7개동(면적 300㎡)을 설치해 북쪽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야채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진각종과 조불련은 현재 불교협업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원우 기자

# "예성애드컴 공사대금"

## 조계종에 반환하라"

### "불교중앙박물관 입찰 사기" 판결

예성애드컴의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입찰행위는 사기이며, 공사대금 중 7억1260만1481원은 조계종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25일 서울 중앙법원 제24부(재판장 김경배)에서 진행된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성애드컴이 조계종의 낙찰기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조계종의 낙찰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거나 응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입찰함으로써 조계종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 계약 무효를 인정한다"고 적시했다.

남동우 기자

# "발굴유물 소유권 회암사에"

## 대법, 국가 귀속 관례 뒤집고 사찰에 승소 판결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출토된 발굴유물의 소유권이 회암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4월 27일 회암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던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찰에 있음이 인정된 첫 판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 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소

유권이 현재의 조계종 회암사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해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은 5월 8일 "이번 회암사 승소 판결은 법원에서 사찰 경내지의 발굴유물에 대한 사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동안 사찰출토 문화재가 국유화되면서 여러 기관으로 유물이 분산 보관돼 오던 폐단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앞으로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령 보완 및 행정지침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사찰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현판식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효림·성관)가 5월 3일 산하 정책연구기관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법안 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이 소장을, 보경 스님(서울 법련사 주지)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스님과 재가불자 관련분야 전문인 10여 명이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돼 법률,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올해는 '주요정책 의제개발 및 단기 과제실천'을 목표로 삼고 사회경영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강맥 전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5월 9일 안암동 보타사에서 전강법회를 통해 박한영, 윤하, 홍범 스님으로 이어진 한국불교 전통강맥을 선지(통천사 주지), 법인(회엄학림 강사), 승원(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 관장) 스님 등 세 명의 제자에게 전수했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 중국 장가계와 남보타사 순례 떠나오

현대불교신문사는 중국 전문 여행사인 격려여행사와 정식으로 업무 제휴를 맺고 성지순례 사업을 실시합니다. 수려한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중국 여행의 최고 백미로 꼽히는 호남성 장가계(자진)와 당나라시대에 건립된 천년고찰인 복건성 하문 남보타사를 참배합니다. 장가계에서는 천자산 자연보호구를 비롯해 무릉원으로 불리는 백장협, 봉우리가 붓을 꽂아 놓은 듯한 어필봉, 원가계 풍경구, 중국최대의 동굴인 황룡동굴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문에서는 남보타사 이외에도 역시 천년고찰인 천주의 개원사와 법천사 등 3사 순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하문 최대의 은천장인 '일월곡' 관광도 할 예정입니다.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격려여행사
- 일시: 6월 1일(금)~6월 6일(수) <5박6일>
- 일정: 장가계, 원가계, 하문 남보타사, 개원사, 법천사
- 가격: 84만9천원(비자수수료 포함)
- 문의: 격려여행사(02778-9338/담당 임수연, 안경아)

#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 프(http://hompj.buddhapia.com/homepj/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 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원역,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3월 15일~4월 20일, 2차=5월 1일~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보덕학회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010-6318-1976)
- 주요 프로그램

-이행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츠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니 궁전 탐방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판지불교공원 참배  
-자연체험: 와이키키 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필리버라스 와이메아공원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회교 강의' 실시

# 21세기 불교를 학문과 교양으로 읽는다

# 알기 쉬운 불경

불교경전의 정수精髓만 모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불경 시리즈



## 자유인 임제

성열 지음 | 신국판 | 값 18,000원

###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지宗旨인 임제宗을 창시한 임제臨濟의 일대기!

부처님을 믿고 매달리는 신앙인이 아닌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난 대자유인으로 선현의 참모습을 보여준 임제를 통해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찾는다.

현암사가 선보이는 불교 서적



- 불교대전: 전체 한문본 관찬 | 이원섭 역주
- 불교성전: 해탈론 옮김
- 불교개론: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붓다: 무사코지 사카에스 지음 | 박경문 옮김
- 법구경: 김달진 옮김
- 열반경: 다무라 도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아함경: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화엄경: 다미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반야·유마경: 이시타 미즈마루 지음 | 이원섭 옮김
- 미란다왕문경: 이시카미 현오 지음 | 이원섭 옮김

